

코스피지수 1,412.42 (-16.17)

코스닥지수 519.63 (-4.63)

금리 (국고채 3년) 4.27% (-0.03)

원·달러 환율 1,262.00원 (+8.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광기술원·전자통신연구원 등 첨단 연구기관

“차세대 성장동력 찾아라”

광기술원, LED 이어 산업용레이저 개발 ‘1순위’

전자부품, 스마트케어 클러스터 조성 서둘러

광주 첨단산단에 자리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연구센터는 요즘 자동차·조선·광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차세대 먹거리를 찾느라 바쁘다. 목표는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와 지역 전략산업을 아우르는 IT융합기술 수요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센터가 나서서 쟁겨야 할 미래 먹거리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센터는 이를 위해 최근 대규모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산업 클러스터 내 광 관련 327개 업체 상당수가 고용 인원 10명 미만에 단순 조립, 생산업체다. 지역 전자부품업체도 국내 생활가전 생산라인의 17.5%에 이를 정도로 집적화돼 있지만, 대기업 의존성이 너무 높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 벤처들은 “지금 새로운 기술로 갈아타야 한다”, “자체 브랜드로 독자 생존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보다는 하루하루 살아남기에 바쁜 실정이다.

글로벌광통신 안보영 부사장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처럼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기 힘들다”면서 “지역연구기관들이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동원해 지역 벤처기업을 위한 맞춤형 차세대 성장 아이템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늦으면 안 된다”=문제는 어떤 기술을 세계 시장에 언제 내놓느냐다. 세계 시장에서 너무 앞서거나 너무 뒤처지면 모두 도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광기술원은 그들

안 개발에 주력해온 발광소자(LED)의 바통을 이들 새 사업으로 ‘산업용 레이저’를 1순위로 꼽고 시장 진입 시기를 늦추고 있다. LED가 국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기는 했지만 ‘땀생 먹고 살 거리’는 못된다는 판단에서다. 광기술원은 잘만하면 현재 전량 수입하고 있는 산업용 레이저의 핵심 부품을 대체할 수 있고, 오는 2012년 13조7천억원에 이르는 세계 시장을 어느 정도 나눠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디지털컨버전스센터도 ‘스마트케어 가전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검토 중이다. 광주 국내 최대 생활가전 집적지라는 점을 활용해 건강·실버·의료 보조 기능이 융합된 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2014년까지 국비 350억원 등 500억원을 지원받아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연간 3억 불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광주혁신 클러스터추진단도 최근 지역 업체, 전문가들과 함께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하는 등 LED와 광통신 등을 조선산업에 융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완도출장소는 15일 강진군 강진읍 화전 14호 참교 수매장에서 올해 첫 보리수매를 시작했다. 올해 전국 보리 매입 계획량은 13만 6천600여t이며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은 7만8천800여t으로 전국의 57.6%에 달한다. (강진군 제공)

5월 수출물가 큰폭 하락

전년동기비 4.1% ↓ ... 2년3개월내 최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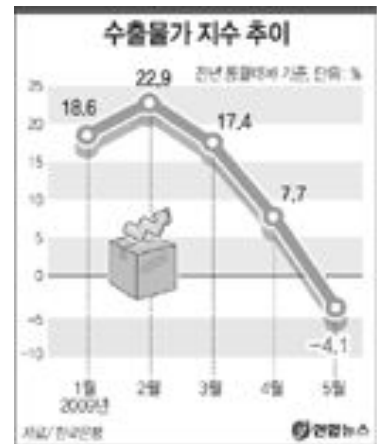
환율 하락 등으로 5월 수출물가가 2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수출물가 하락은 대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5월 수출입물가 동향’에 따르면 수출물가 총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4.1% 떨어졌다. 이 감소폭은 2007년 2월(-4.2%) 이후 최대다.

수출물가 지수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2005년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유지하다 2007년 11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다. 작년에는 금융위기를 맞아 10월에 38.6%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올라갔다.

올 들어서는 1월 18.6%, 2월 22.9%, 3월 17.4%, 4월 7.7% 등의 폭으로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중형 승용차의 수출물



가가 4.5% 내렸고 집적회로 8.6%, 무선전화기 8.3%, 위성수신기 10.3% 등의 비율로 하락했다. 아연도강판은 13.8%, 철강선은 10.0%, 굴삭기는 4.0% 등의 폭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철광석값 내년 10% 이상 상승”

中 경기 회복 수요 급증

올해 급락했던 호주의 철광석 수출 가격이 내년에는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철광석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철광석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결정 구조가 급급히 위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와 크레디티스위스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철광석 수출가격 및 현물시장 가격 전망치를 10% 이상 상향조정했다고 일간 디오 스타레일리언이 15일 전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말콤 사무스드는 “철광석 수출가격이 현재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시장에서 가격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도로와 발전소 건설 등 SOC 투자를 위주로 모두 7천7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철광석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 철광석 수출가격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7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일본과 한국 철광석생산업체들은 최근 호주 철광석생산업체들과 수출가격 3% 인하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업종내 최고-최저가株 가격차 줄었다

중·소형주 약진 탓 지난해 1,044배서 471배로 축소

올해 들어 업종 내 최고가, 최저가 종목 간 주가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8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 내 최고가와 최저가 종목 간 주가 배율(최고가/최저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평균 1천44.4배에서 지난 11일 471.15배로 축소됐다.

이는 최고가 및 최저가 종목 간 주가 격차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11일 현재 신세계(47만2천원)와 영광실업(350원)이 각각 최고가와 최저가를 차지한 유통업종이 3천707.69배에서 1천348.57배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3천110.34배에서 1천426.83배로 줄어든 전기전자(삼성전자 58만5천원, 오리엔티옵틱스 410원)와 2천702.63배에서 1천58.91배로 급감한 화학(태광산업 68만3천원, 현대퍼앤시 645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최고가 종목이 해당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도 작년 말 22.66%에서 20.68%로, 1.98%포인트 감소했다.

최고가 종목으로는 기계의 두산중공업, 비금속광물의 한일시멘트, 섬유 의류의 경방 등 3개 종목이 새로 진입해 큰 변동이 없었지만 최저가 종목은 진흥기업(건설업), 메리츠증권(금융업), 이앤스리(기계) 등 무려 13개 종목이 변경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들어 중·소형주의 주가 상승률이 대형주를 앞지르면서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車보험료 할증기준 올린다

20년만에 ... 50만원 → 150만원 상향 검토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 할증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낮아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운전자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 기준은

1989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 상승과 차량 고가화 등으로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수리비가 5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20년째 할증 기준을 바꾸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 사들이 현행 기준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운전자에게 자비 처리를 유도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할증 기준 금액을 150만 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 '포르테 쿵-KT '쇼 무브' 공동 마케팅

기아차는 15일 스포츠 세단 '포르테 쿵'(FORTE KOU)과 유무선 통합메신저 '쇼 무브'(SHOW MOOV)를 연결하는 공동 마케팅을 KT와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우선 온라인에서 '포

르테 쿵-쇼 무브 론칭(출시) 이벤트'를 마련, 오는 30일까지 쇼 무브 홈페이지(www.SHOW-moov.co.kr)에서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에 포르테 쿵 1대, 2등에 최신 휴대전화 경품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advertisement listing various propertie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 062)236-3400.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info: 062)973-9174, 016-757-8800.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info: T: 383-5221 H: 011-609-5221.

대인동상일부동산.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info: (02)223-1140, 5210-011-602-2532.